

세월로도 덮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

본문: 창세기 42:18-38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85rHRH6wUA8?si=0fbgeTl5S8YPIbMH>(주소 클릭 ->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는 종종 '세월'이라는 지우개로 자신의 허물과 과거의 과오를 덮어버리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잊힐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동생을 팔아넘긴 지 무려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으니, 과거의 죄악이 이미 과거 속에 묻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죄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애굽의 총리 앞에 선 형들은 낯선 고난과 시험을 마주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벌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감각해진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평생을 짓눌러온 깊은 죄책감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었습니다.

요셉이 과거 악행에 앞장섰던 서열 2위 시므온을 정확히 짚어 결박하고, 동생을 팔아넘겼던 탐욕의 증거인 '돈'을 자루에 도로 넣어주었을 때 그들의 굳어있던 양심이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자루 속의 돈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며 사건 뒤에서 내 감춰진 죄를 다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복된 두려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아버지 야곱은 당장 눈앞의 현실과 현상의 벽에 갇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며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현실의 이면에는, 온 가정을 기근의 멸망에서 건져내고 있었던 아들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거대한 구원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월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억을 덮을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영적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묻어둔 묵은 죄악과 쓴 뿌리를 십자가의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의 매임에서 온전히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한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는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요셉의 형들은 자루 속에 도로 들어있는 돈을 발견하고 혼비백산하여 떨며,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창 42:28)
2. 야곱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과 베냐민까지 데려오라는 요구를 듣고, 눈앞의 답답한 현실을 보며 어떻게 탄식합니까? (창 42:36)

[삶의 적용]

1.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회피한 채, 하나님 앞의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 내 마음속의 쓴뿌리나 묵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2.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현상의 벽에 갇혀 원망하거나 절망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대한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믿음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세월 속에 덮어둔 과거의 연약함과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눈앞의 현상을 넘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